

식민문학에 대한 저항 텍스트 만들기: 세이머스 히니의 글쓰기에 나타난 언어 전략

강 민 전

I. 식민문학에 대한 대항적 주장의 가능성

영국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전략의 하나로써 사용되어졌던 식민문학은 자국의 문화적 재산에 대한 편리한 견해로 무장함으로써, 피지배 공간에 대해 문화적 우월성과 함께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은유적인 체계(metaphoric system)였다. 즉, 그들의 지식과 가치체계를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식민지배 시스템 안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고정된 타자를 향해 호명(addressing)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낸디(A. Nandy)의 저서 『친밀한 적: 식민주의 하에서의 자아 상실과 회복』(*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유럽이 문명적 풍요로움의 장소로 등장하기 위해 식민화된 세계는 의미를 박탈당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주의 태도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식민화하여, 그들의 문화적 우선 순위들을 일거에 변형시키기 위해 식민화된 사회에서 정신적인 무력을 행사

한다. 그 과정에서 식민주의는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실체에서부터 심리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근대 서구의 개념을 보편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서구는 이제 어디에나, 서구의 안과 밖에, 구조들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다. (Nandy xi)

식민 문학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통한 식민화과정은 피식민자들에게 지배 텍스트 읽기라는 정신적 무력을 가함으로써, 식민화된 주체로 자신들과 동일화시키거나 혹은 영원히 타자의 위치로 내몰아 간다. 식민지배자들의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동일화과정은 그들의 지식과 교육의 과정상의 내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배언어인 영어를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방법은 전형적인 계몽주의 형태를 띤다. 즉, 피식민지배 공간안에 머물러 있는 피지배자들을 미성숙한 인간의 형태로 보고 성숙한 인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의 필연적이라고 말을 한다. 이에 사이드(Edward Said)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서구 문학의 본래적 우월성은 오리엔트 교육계획을 지지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인정한 사실이다. ... 내가 믿기로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합되는 모든 역사적 정보라는 것은 영국의 예비학교에서 쓰이는 보잘 적 없는 축약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Said 112)

결국, 식민문학이라고 하는 텍스트 정치는, 피식민 공간의 특수하고도 고유한 언어와 텍스트를 말살함으로 해서 우월성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게 된다.

식민문학의 글쓰기는 새로운 식민지를 친숙한 서사 및 장르적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포괄적으로 피식민 공간을 통제한다. 그리고 제국 그 자체는 중심부 영국문화의 텍스트적 자기 재현과 서사적 감성을 규정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영문학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보급은 식민통치를 하나의 교육적 사명으로 표상할 뿐만 아니라, 영국 문화와 영국인의 식민주의적 태도를 합리화하여 유통시키고 대중화시킴으로써 제국에 대한 피식민지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거나 동의에 의한 통치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에쉬크로프트(Bill Ashcroft)는 이러한 식민문학의 텍스트적 침입(textual invasion)에 대해서, 식민지내에 동화된 영문학 텍스트는 의심할 줄 모르고 순진한 토착민의 몸 속에 식민주주의자들의 명령을 은밀하게 감염시킨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면서, 피식민지인들은 영문학의 선별된 정전에 의한 글읽기와 암기의

반복적인 교육에 의해 정신적이며 정치적인 은폐된 의식화에 굴복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즉, “문학 텍스트를 암송하는 것은 일종의 순응의 제식행위가 된다”(Ashcroft 426)고 한다.

이런 식민문학의 저항적인 한 형태로 출발한 탈식민 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독립을 이룬 인도, 나이지리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일랜드 등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서 독립된 이후에 하나의 탈식민 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참여한 특정 문학을 지칭한다. 탈식민 문학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정서를 담은 문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이제 이 용어는 단지 시기적으로 독립 이후의 문학 작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식적으로 실제 식민지배를 경험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피식민국가 내에서도 자생적으로 발생한 정치, 문화화적 해방의 형태로의 운동은 있었고, 그러한 가치나 역사관은 독립 이전에 썼던 문학 텍스트에서도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탈식민 문학이란 독립이전의 식민시대에 쓰여 졌던 문학을 통틀어 현재까지의 그 후 유증을 타개하기 위한 일련의 탈식민 과정과 공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학으로서의 텍스트는 다른 어떤 문화적 정치적 산문보다 식민권력과 탈식민적 저항의 가장 중요한 선동자이자 조달자가 된다. 따라서, 티핀(Helen Tiffin)이 『제국 묘사하기: 탈식민주의와 텍스트성』(*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 주장하듯이, “제국주의적 관계들은 처음에는 총과 칼이라는 교활함과 질병에 의해 확립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착 단계는 주로 텍스트성에 의해 유지되었다”(Tiffin 3). 더불어 식민 권력에 대한 탈식민적 텍스트 저항은 이단적인 대항 텍스트성(anti-textuality)을 가지게 된다.

불에는 불인 것처럼, 텍스트적 통제는 텍스트성으로 맞서게 된다. ... 탈식민주의적인 것은 특히 압도적으로 담론과 텍스트에 내재하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의 저항은 꽤나 적절하게 텍스트성의 영역 속에서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동기화된 글읽기 행위로 생겨날 수 있다. (Tiffin 10)

이런 탈식민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글쓰기에 나타나는 언어의 문제이다. 식민지 본국 언어와는 다른 차원의 차이, 분리, 그리고 부채의 언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것의 구성적 토대는 식민지 본국의 언어가 설정한 기준에 대한 소통수단으로써의 중심부 권력 안에 잠재해 있는 식민주의적 시각을

폐기함과 동시에 제국중심주의적 사고를 해체하는 균열적 글쓰기 전략인 것이다.

언어는 식민화된 공간에 명칭을 부여하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언어는 실체를 구현시키고, 대상에게 명명하기를 부여한다. 지배자의 언어는 바로 피식민자들에게 하나의 용이한 식민지배의 구실을 제공해 왔다. 이에 지배자들의 언어를 바꾸거나, 불순한 것으로 구성된 다른 변종의 형태를 띠어 새로운 공간에 제국의 언어를 비트는 방식은 탈식민문학에 나타난 주요 특징이다. 보호머는 이러한 글쓰기 전략을 ‘균열내기’(cleaving)의 이중적 과정이라고 말을 한다.

균열적 글쓰기는 식민적 정의로부터 쪼개져 나오기(cleaving from), 떨어져 나오기, 식민주의자들의 담론의 경계 위반하기, 그리고 이를 위해 들불기(cleave to)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식민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언어적, 그리고 텍스트적 형식들을 빌려오기, 접수하기, 또는 차용하여 전유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Bochmer 106-107)

즉, 식민본국의 언어인 영어의 특권을 폐기(abrogation)하거나 거부(rejection) 혹은 차용하여 변형시킴으로써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하는 그 언어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언어를 새로운 용례를 사용하는 방식을 확보하고 재조정함으로써 식민주의 특권으로부터 일탈을 사고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식민문학에 대한 대항적 주장(counter-claims)에서 출발하는 탈식민 문학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아일랜드의 작가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글쓰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언어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식민 후유증을 경험하는 이전 피지배 공간의 문학에 나타나는 대항적 실천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II. 저항 텍스트로서 영어 되받아 쓰기 전략

식민지배 전략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영토의 소유권을 토착민으로부터 식민지배자들의 소유로 이동해간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언어에 있어서도 언어의 중심 세력은 토착어에서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혹은 강요하는 언어로 옮겨 간다. 피식민지 언어는 중심 세력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수반하는 지배

계급의 언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항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소멸되기 쉽다. 토착 아일랜드의 고유 언어인 게일어(Gaelic language)의 폐기는 아일랜드의 모든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게일어 교육을 배제시킨 언어 식민 정책, 생계어나 상용어로서 영어의 유용성, 공식어로서의 영어의 권위, 게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하위 계급이라는 낙인, 이와 대조되는 영어의 사회적, 문화적 우월성에 의해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이머스 딘(Seamus Deane)은 아일랜드 문학에서 언어의 문제가 분리되고 교란된 문학의식을 낳았다고 말한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문학 의해 사용되어지는 언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아일랜드어의 문제로부터 이산되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자국의 언어가 빼앗겨진 공간은 바로 전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민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가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써의 아일랜드는 새롭게 습득되어지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언어와 같이 동반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습득하려고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느낌이 가끔은 진지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짜증이 날 수도 있으나, “감추어진 아일랜드”(Hidden Ireland) 와 그 오래된 언어와의 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Deane 17)

딘은 아일랜드 문인들의 영어와 게일어에 대한 복합적인 언어 의식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언어와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전통을 재생시키고자 하하고자 하면서도 옛 언어와 옛 문화 전통과의 형성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히니 역시 딘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글쓰기에 사용되어지는 특수한 언어로써 영어와 게일어가 혼재된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영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게일어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영어식으로 흉내 낼 필요는 없다고 한다(Heaney 99).

이러한 아일랜드의 독립 후의 언어사용의 문제는 일종의 작가들에게는 망명객과도 같은 것이며 자신의 조국에서 망명객과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사이드(Edward Said)는 망명객의 언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아랍어와 영어를 동시에 쓰면서 자랐다. 그래서 두 언어는 나의 모국어와 같다. ... 나에게 있어 학문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차적인 언

어는 언제나 영어였기 때문에, 아랍어는 내게는 일상의 언어일 뿐, 비평언어나 학문언어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랍어는 나의 모국어이다. ... 그것은 물론 서구제국주의 교육제도에 기인한다. 그러나 나는 그 영어를 사용하여, 내게 영어를 가르쳐 준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 그것은 일종의 “되받아 쓰기”(writing writes back)라고 할 수 있다. (Said 63)

사이드 역시 식민 교육 하에서 자라나 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영어를 전유하여 사용하는 방식 즉 되받아 쓰기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탈식민화 과정에 복무하고 있음을 시인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히니가 말한 한 바와 같이 영어식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의 창조성에 의해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언어의 방식이다.

아일랜드 작가들은 잃어버린 아일랜드의 언어를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의 언어식민적인 상태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언어의 전유를 택한다. 딘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문학』(*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의 서문에서 식민주의를 근본적인 언어의 박탈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아일랜드 토착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게일어와 게일 문학을 모르고 북아일랜드의 영국계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복잡한 이민사에 낯선, 즉 현재의 망각화 상태에서 특정 역사와 특정 언어를 빼앗긴 아일랜드 작가들에게 영어의 독창성을 창조하려고 시도를 제시한다.

잃어버린 아일랜드어를 회복하는 일은, 영어 그 자체에 순응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말로 아일랜드식 영어(Irish-English language)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으로써, 영국 언어 즉 영어에 대한 일종의 집념에 찬 기교(virtuosity)의 형태를 띠었다. 초기 아일랜드 문학과 아일랜드어를 부활하려는 운동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러한 상황을 예증한다. 예이츠나 조이스와 같은 작가는 그 특징적인 언어의 모습을 완벽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그 밖의 작가들은 단지 그것을 덧대어 치장할 뿐이었다. (Deane 10)

예이츠가 주도한 아일랜드 문예부흥 역시 게일어 복구 운동이 초당파적인 성격으로써 두 민족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게일어 민족주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게일어 속에 들어 있는 민족정신을 일깨우려 했다. 예이츠 역시 히니처럼 영어와 영문학에 애증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정도로

나름대로 언어적, 문학적 정체성의 분열의식을 경험했다. 게일어를 몰랐던 예이츠는 그의 시에, 영어보다 모음 발음이 길어 부드럽고 긴 여운을 주는 게일어 지명이나 인명을 사용해서 사라져가는 게일어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 게일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켈트족의 정신적인 성향과 아일랜드 민족정신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려 했다.

히니의 언어적 자의식은 북아일랜드 사태 직후 강화된 그의 저항 의식의 표현이었다. 그러한 그의 저항적 언어의식은 그의 시집 『겨울 나기』(*Wintering Out*)에 잘 표현되어있다. 모리노(Molino)는 이 시에 대한 평가에서, 히니의 시어들을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explode in silence)시라고 말한다(Molino 57). 히니는 게일어가 거의 소멸해 가는 시대에 태어나 사라진 모국어의 흔적을 아일랜드 영어에서나마 찾으려 애쓰는 강한 언어적 자의식을 표출하였다.

고대 아일랜드어인 ‘라크타르’(lachtar)라는 표현은 내가 영어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말속에서 게일어가 아일랜드어였던 고대시절로 뻗어 올라가면서, 우리의 허끝에 생생히 살아있는 모세혈관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Parker 41)

히니는 청년 시절에 한 게일어 여름 캠프에 들어가서 비로소 게일어를 모국어로써 말하는 경험을 해 보았다. 히니의 게일어에 대한 애착은 영어에 살아남아 있는 게일어 단어인 게일어로 어린병아리를 뜻하는 ‘라크타르’(lachtar) 표현이 “우리네 허 끝에 살아있는 모세혈관이 되어 게일어가 아일랜드어였던 고대 시절로 뻗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게일어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영어라는 언어의 식민주의를 경험한 아일랜드 작가들의 언어 의식은 언어적 식민 유산을 밝힘으로써 언어에 나타난 제국에 의한 식민지의 억압과 주변화 과정으로서의 식민사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고 결국은 언어의 회복을 통한 아일랜드의 정체성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가 아일랜드 영어(Irish English)의 다중적 언어의 문화성을 강조하여 배타적인 단일 문화 의식을 포용하고자 할 때 그의 현실주의적 켈트주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히니의 언어 의식에는 지금은 영어화된 단어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게일어 원을 밝혀서 일차원적으로는 언어적, 문화적, 더 나아가서 영토적 주권을 회복시키고, 이차적으로는 아일랜드 영어에 영국적인 경험과 아일랜드적인 경험이 합쳐

있음을 밝힘으로써 언어 공동체의식으로써 두 민족을 융화시키려는 희망이 표현되었다. 그에게는 아일랜드 영어의 “모음”과 “자음”이 각각 영어와 게일어(our speech, English and Irish)(Heaney 135), 또는 아일랜드적인 경건심과 영문학에 대한 자각을 상징하며, 그의 시는 이 두 언어적 문화적인 경험이 합쳐져야 비로소 소리가 나는 아일랜드 영어를 상징하기도 한다.

나의 글쓰기의 근원은 나의 글읽기와 겹쳐질때 비로소 나는 시인으로써 출발하게 되었다. 나는 모음으로서 나 자신과 아일랜드의 경건함에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 에다가, 자음으로써 영어가 나의 문학적 인식의 자양분이 되었다. 나의 바람은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경험에 대해 적절히 어휘적인 것(be vocable)이 되는 것이다. (Heaney 36)

아일랜드 영어에 대한 이와 같은 히니의 언어적 의식의 특징 중 하나는, 딴도 말했듯이, 표준 영어와 다른 아일랜드 영어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아일랜드 영어 사투리는 그 소리에 있어서 게일어의 모음적 특색이 영어의 자음적 특색과 합쳐진, 게일어 모음가가 강한 영어인 점이 강조된다. 히니는 영어의 특징을 혼육적이고 딱딱한 앵글로 색슨 (Anglo-Saxon)어적인 자음 혹은 게일어의 특징을 부드럽고 모음, 후음의 전통 등의 부드러운 비음과 자음으로 정의해서 영어와 게일어의 소리를 대조시켰다. 히니의 언어적 정체성의 추구는 아일랜드 영어 속에 남아있는 게일어 음가와 게일어 어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히니의 게일어는 모음이라는 열린 소리가 의미하는 모성적이고 관능적이며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으로 설정되어서 종교적인 본능과 정서가 강한 아일랜드 문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영어의 딱딱한 자음은 이성과 훈련, 힘, 의지의 영국 문화를 상징한다.

사라진 게일어에 대한 히니의 사색은 국어가 상실된 것을 체념하고 인정하는 비가적인 태도, 게일어의 음가가 아일랜드 영어에 남아 있다는 긍정적 태도, 빼앗긴 국어를 회복하려는 태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암흑」(“Midnight”)에서 게일어의 상실은 아일랜드 전통 문화의 상실과 동일시된다. 이 시에서 언어의 소멸, 늑대와 사냥 문화의 사라짐, 민족주의자의 죽음이라는 세 가지 식민현상은 늑대(wolf)와 18세기 독립운동가 울프 톤(Wolf Tone)의 동음 이의어적인 사용에 의해서 연결된다.

지독한 전쟁이후에 -
비속에 말뚝 막힌
군사들과 썩은 고기 -
늑대는 죽어가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

어떤 것이 헐떡거리고, 처져 있고,
혀가 축 늘어져 있다. 그 혀바닥이
내 목구멍에서 묶여있다.

Since the professional wars-
Corps and carrion
Paling in rain-
The wolf has died out

In Ireland.

...

Thing is panting, lolling,
Vapouring. The tongue's
leashed in my throat.

("Midnight" 45-46)

화자는 비오는 밤에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고대 아일랜드의 사냥 문화가 한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소멸”되어(“killed”) 버린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 퀘이커교도는 영국 개신교도를 상징한다. 비가, 번득이는 현무암과 화강암의 노출부를 굳히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린 이끼가 낀 가지에 방울방울 떨어져 오래된 굴은 빗물에 폭 적셔지고 있다. 이 굴에서 지금은 어떤 동물들의 혀도 헐떡거리지도, 축 늘어지지도, 김을 내뿜지도 않는다. 그들의 사라진 혀는 화자의 혀와 동일시되고, “혀가 목구멍에 묶여 있다”는 것은 게일어를 상실하여 모국어를 말할 수 없는 아일랜드인들의 처지를 상징한다.

반면, 영제국주의에 의한 게일어의 주변화의 한 예로서 게일 지명의 영어화 작업이 있다. 영국은 1824년에 아일랜드에 토지측량부를 세워서 영국계 개신교도들에게 유리하게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토지명을 영어로 바꾸어 아일랜드 땅을 영구적으로 종속화하려 했다(Said 396). 제국의 식민지 지도 제작 즉, 영토의 식민화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지명을 영국인이 발음하기 좋게 영어화 하였을 때 이 지명의 영어화에 의해서 아일랜드의 토지와 역사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인의 의식도 전환되었다. 결국 게일어의 상실은 언어뿐만 아니라 장소의식, 소속감, 전통의 상실임을 밝히는 것이었다(Molino 18-19). 딘은 “한 공간을 명명하거나 다시 명명하는 것, 인종, 지역, 한 개인을 명명하거나 다시 명명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든 원래의 지명을 소유하는 행위인 것이다”(The naming or renaming of a place, the naming or renaming of a race, a region, a person, is, like all acts of primordial nomination, an act of possession”)라고 말을 한다(Eagleton 18).

영국의 언어식민화 정책의 저항 형식으로, 사이드에 의하면 저항 문학의 첫 번째 작업 중의 하나는 잃어버린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바뀐 지명을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복기시키는 일이다(Said 397). 이러한 빼앗긴 이름과 지명들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히니가 명명한 “지명시”(dinnseanchas/poetry of locality)를 들 수 있다. 히니의 지명시는 은밀한 저항을 내포함으로써 언어와 영토의 식민사를 이야기한다. 그의 지명시는 영토와 언어의 주권을 심리적 혹은 상상적으로나마 탈환하려는 시라 할 수 있다(Burris 68). 히니에 의하면 지명의 어원은 그 지역의 소유자의 역사를 암시해주며 이름은 땅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행위이다(each name was a kind of love made to each acre)라고 한다(Heaney 20).

지명시는 히니에게서 영토의 박탈이라는 식민화의 경험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게일어 소리에 의한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말을 한다. 히니는 그의 글 「벨파스트」(‘Belfast’)에서 영어화된 지명에 담긴 본래의 게일 어원의 소리는 목구멍 속에 걸려 있는 잊혀진 게일 음악이라고 말했다.

모스본은 브로흐(Broah)와 아나호리쉬(Ananhorish)지역의 경계선이다. 강둑을 지칭하는 부르어크(buach)나,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장소라는 지명의 아나크 홀리어 위스세(anach fhior uisce)는 잊혀졌던 게일의 음악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이름들은 나를 과거 켈트족의 여명(Celtic Twilight)과 같은 문학적 안개 속으로 이끈다. (Heaney 36)

히니의 지명시는 아일랜드 특유의 어원과 어휘와 억양에서 시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이러한 그의 시는 언어의 전유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 신화의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아일랜드의 고유어의 아름다운 예술성을 시로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언어적으로 억압받았던 식민공간을 보상받는 일이자 동시에 탈식민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명과 언어를 발견하고자했던 그의 노력으로 그는 글쓰기 과정에서 이제 게일어는 ‘치워진 언어의 안치대’(the dislodged slab of the tongue)라고 하면서, 폐기되어진 언어를 영어와 동시에 중첩시킴으로써 바로 그의 글쓰기는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러한 시인의 자각은 아일랜드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영어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 즉 그것은 바로 언어의 전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언어의 전유를 통한 아일랜드 해방공간 만들기

지명시 「툼」(“Tomme”)에서 “툼”(Tomme) 소리는 식민사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단어이면서 에로틱한 소리이다. “툼”은 벤(Bann)골짜기에 있는 옛 독립 전투지이며 고고학적 유물의 발굴터이다. 화자는 “툼”을 발음할 때 느끼는 입 속의 물리적 촉각을 즐기다가 문득 언어학적인 기억을 더듬어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 이 시의 화자는 ‘툼, 툼’(Tomme, Tomme) 소리를 내면서 느끼는 소리의 울림, 그 울림을 따라 가면서 부드러운 발파음을 연상한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만나서 사라진 게일어 속에 파묻혀 버린 민족정신을 발굴해 낸다.

내 입이 둥글게 모아지면서
부드러운 파열음
툼, 툼을 낸다.
제거되어졌건

혀의 안치대 아래에서.

...

백년의 세월 속에

양토, 부싯돌, 구식 탄환,
조각난 도자기
목걸이와 생선뼈

My mouth holds round,
the soft blastings,
Toom, Toome,
as under the dislodged

slab of the tongue

...

in a hundred centuries'

loam, flints, musket- balls,
fragmented ware,
torcs and fish- bones

(‘Toome’ 26)

툼 다리 밑에서 발굴해 낸 대포알, 부싯돌, 물고기의 뼈, 고대 아일랜드의 목걸이용 장식품은 고대 아일랜드 대한 역사적 자료이다. 화자는 민족이라는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자아가 되어 땅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단숨에 만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 층적층 속에서 뱀과 만난다. 실뱀장어들이 화자의 머리 뒤로 줄을 짓는다. 고대 아일랜드에서 유난히 많았던 뱀은 아일랜드인들의 토속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명력을 상징하였으며 5세기경 성 페트릭이 아일랜드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면서 추방하였다고 전해진다(Morrison 44). 히니는 위 시에서 민족 언어에 담긴 생명력이 왕성했던 민족 정신을 되찾고 싶은 욕망을 표현했다.

그러나 지명의 소리는 게일어의 소리이면서 모순되게도 영어화된 소리이기도 하므로 지명시는 히니의 게일어의 소리에 대한 욕구와 영어의 소리에 대한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히니는 그의 지명시가 영어의 에로틱한 입술 음악의 소리 탐구와 고향에 대한 신의라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그에 대단한 해방감을 주었다고 고백한다(Deane 47).

결국 지명사에서 히니가 느끼는 어원적인 의미 이전의 소리에 대한 시적 만족이란 이미 두 언어가 융합된 소리에서 그가 현실적으로 추출해 내는 이념적인 의미인 것이다.

한 지역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의 소리는 그 공동체의 언어적 음악으로서 공동체의 정신적 혹은 문화적 독자성을 담고 있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다. 사실 같은 언어를 상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 정서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민족어에는 민족의 혼이 담겨있다. 그의 또 다른 지명서 「아나호리쉬」(“Anaghorish”) 언덕은 영국령이지만 그 지명에는 켈트족의 언어적, 문화적 주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장소는 결국 시로 재현되면서 소리의 화합 장소, 아일랜드어의 이미지 모음과, 영어의 이미지인 자음이 화합하는 장소로 변한다.

아나호리쉬, 자음의
부드러운 비탈, 모음의 목초지,

...

저 선사시대 사람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안개를 헤치고
우물과 퇴비더미의
얇은 얼음을 깨러간다.

Anahorish, soft gradient
of consonant, vowel-meadow,

...

those mound-dwellers
go waist-deep in mist
to break the light ice
at wells and dunghills.

(‘Anahorish’ 16)

아나호리쉬('Anahorish')는 게일어 "Anach fhior uisce"를 영어화한 말로 맑은 물이 흐르는 장소(my place of clear water)를 뜻하는 단어인데 고대 아일랜드에서는 세계 최초의 언덕(the first hill in the world)을 의미했다. 세계 최초의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켈트족의 정기를 담은 샘물이 빛나는 풀과, 짙은 색의 자갈을 씻어 내리던 그 언덕에는 지금은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이 살면서 우물과 거름 더미 위에 얇게 얼은 얼음을 깨고 물을 길러 나른다. 이 시에서는 지역과 지명이 합쳐져서 풍경이 언어로 이미지화되어 나타난다. "부드러운 비탈"은 게일어 자음가를 소리낼 때 혀가 입천장으로 향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열린 풀밭"은 게일어 모음가를 소리낼 때의 혀 모양이다. "아나호리쉬"(Anahorish)란 단어에서 자음의 부드러운 언덕과 모음의 초원이 합쳐져서 아나호리쉬 언덕의 샘터가 된다. 결국 이 장소는 '등불의 잔상'(image of lamp)속에서도 굳건히 생존한 조상들의 생명력과 희망을 나타낸다. 이 희망은 바로 시인의 글쓰기의 희망이기도 하다.

영어적 의미의 강둑(riverbank)을 지칭하는, 또 다른 시 「브로흐」("Broagh")에서 히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후음 "gh"("that last gh the strangers found difficult to manage")으로써 두 민족을 아일랜드 영어라는 언어 공동체 의식으로 결속시키고 싶어 한다.

강둑, 넓은 잎의 마디 풀밭에서
끝이 나는 긴 고랑들과
여울 아래까지
천개로 갈려진 통로

쉬이 으깨지는 발 흙
너의 뒤통치 자국에
고이는 소나기는
브로흐에 들어 있는

새까만 O,

Riverbank, the long rigs
ending in broad docken

and a canopied pad
down to the ford.

The garden mould
bruised easily, the shower
gathering in your heel^{ma가}
was the black O

in *Broagh*, ('Broagh' 27)

시인의 말에 의하면, “브로흐”(Broagh)라는 단어는 “프로테스탄트 연합주의자나 가톨릭 민족주의자가 공유하는, 아일랜드의 고유의 소리, 그러나 영국인들에게는 없는 소리“(a sound native to Ireland, common to Unionist and nationalist, but unavailable to an English person)이다(Corcoran 90). 결국, 브로흐에서 나는 모음소리를 “O”로 통합시킴으로써 화합과 수용에 대한 시인의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브로흐’라는 단어는 결국 종교적 분열을 뛰어 넘는 화해의 언어적 패더라임(linguistic paradigm)(Corcoran 90)이 될 수 있다. 히니는 이러한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그 적대적인 공동체의 정치적 화해와 역사적인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히니의 지명시에서는 장소와 이름이 지명에 중첩되어 언어와 언어 대상이 섞이고, 지명의 발음 소리가 그 장소의 특징을 이룬다. 장소의 이름에는 토착민의 경험과 더불어 한 장소에서 수백 년 간에 걸쳐 함께 살아온 두 민족 공통의 지역 정서가 담겨져 있으므로 지명은 아일랜드의 정치적 이상인 민족 화합을 배양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히니의 희망이다. 히니는 아일랜드 영어야말로 두 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영역임을 애써 주장한다.

그의 언어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과 언어 식민화의 현실을 긍정하려는 의지, 영어에 대한 전유적 태도가 담겨있다. 즉, 시인은 아일랜드성이라고 하는 ‘모음의 포용력’(vowelling embrace)이 ‘자음으로 구획된 영지’(Demesnes staked out in consonants) 즉, 식민영토에 드러나 식민경험의 아픔을 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는 두 민족이 문화적, 지형적으로 그랬듯이 언어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아일랜드에 사는 두 민족은 표면상으로는 영어라는 하나의 국어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영어 발음 소림만으로도 그가 어느 민족과 계급에 속해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으로 표준어와 사투리로 차

별화되어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영어는, 식민 지배자들의 영어의 동질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하위 계급의 지방 사투리로 경멸받아 왔으며 계급과 민족의 차이를 드러내는 도구이다. 자연히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그들의 영어 발음에 열등감(linguistic inferiority complex)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6부 연작시 「학교를 노래함」(“Singing School”)의 첫 번째 시 「공포 담당부」(“The Ministry of Fear”)는 히니가 겪었던 언어적 차별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 억양이

바뀌었나?

우리의 발음이

바뀌었나? ‘가톨릭은, 일반적으로 발음이

프로테스탄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보다 좋지 않아.’

그런 것 기억하나? 열등감

착잡함, 꿈이 만들어지는 소재.

‘네 이름이 뭐니? 히니?’

‘히니입니다, 신부님.’

‘썩 발음이

괜찮구나.’

.

Have our accents

Changed? 'Catholic, in general, don't speak

As well as students from the Protestant schools.,

Remember that stuff? Inferiority

Complexes, stuff that dreams were made on.

'What's your name, Heaney?'

Heaney, Father.'

'Fair

Enough'

('Ministry of Fear' 63)

이 시에서 화자의 이름부르기와 발음의 방식은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중학교 시절에 가톨릭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에서 민족적 편견을 감지하며, 대학교 시절에 경찰의 불시 검문을 받

고 소지품을 수색당하고 개인적인 편지까지 읽히는 불쾌한 경험을 겪는다. 이름을 알고도 다시 그의 이름을 되묻는 신부의 태도에서 그는 일종의 자의적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투리를 쓰는 가톨릭 아일랜드 학생은 영국계 교사들에 의해서 영국계 개신교도 학생들에 비해서 언어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된다. 이렇게 아일랜드 영어 사투리는 북아일랜드 계급 제도와 민족적 편견을 강화한다. 게일어 중에서 아일랜드 영어에 살아남은 표현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게일어로 짓는 전통 때문에 게일어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이름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서 사용하나 영어 문화권에는 속하지 않으며 공포의 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북아일랜드인들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얼스터(Ulster)는 영국의 서정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지역, 즉 영문학을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지 않은 영국령이라고 말한다.

얼스터는 영국령, 그러나 영국 서정시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비록 우리는 이름을 짓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은 온통, 공포 담당부 뿐.

Ulster was British, but with no rights on
The English Lyric: all around us, though
We hadn't named it, the ministry of fear. ('The Ministry of Fear' 64-65)

그 곳은 공포의 통치가 행해지는 얼스터(Ulster) 지방이지 영국이 아니다. 두 민족 사이에는 언어가 분리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언어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며 설사 언어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포 담당부’(the ministry of fear)라고 상징하는 영국에 의해 형식적인 것에 그쳐 진정한 의미에서 언어 소통은 부재하다고 이야기 한다. 유명한 북아일랜드인의 과묵한 종파 갈등, 그로 인한 민족 사이의 언어 소통의 단절과 언어 불신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아일랜드인의 언어 사용은 다소 수다 적이라 할 수 있으나 수 백년간의 식민 시대 동안 민족 사이의 경계심과 불신 그리고 영국에 의한 언어의 통제로 피지배자 이었던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언어는 침묵되어지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는 항상 예들러 말하는 습성이 있게 된다(Trew 17). 히니는 비그리(Monie

Begley)와의 면담에서 북아일랜드인들은 전형적인 아일랜드인들과 달리 말이 없고 에둘러 말한다고 전한다.

북 아일랜드의 가톨릭인들은 전형적인 아일랜드인들이 아니다. 원래 그들은 고귀하면서도 그들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유창하게 웅변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제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오리려 과묵해졌으면, 조심스러우며, 에둘러 말을 하거나 말하는 듯 마는 듯이 보인다. (Morrison 17)

결국 그들은 오랜 식민 지배를 걸치면서 식민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은폐되어지는 언어 의식화로 인해 영어에 편입되어 식민자와 언어사용에 있어 동질화가 되거나 아니면 고유의 속성을 감춘 채 전혀 다른 방식의 언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인이라는 언어사용을 직업으로 하는 히니에게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언어 불신의 전통에 암묵적 저항의 의미로써 그 침묵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마라」(“Whatever You Say Say Nothing”)에서 시의 화자는 그의 어머니의 충고인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빌려, 자신들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침묵을 이야기 한다.

그 유명한

북부의 과묵함, 그 탄탄한 장소와 시간의
발언 금자: 그래, 그래. ‘보잘 것 없는 여섯’에 대해 노래한다
구제 받으려면 단지 얼굴만 구제하면 되는 그 곳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연기-신호는 우리에게 비해 입이 크다:
이름과 학교를 색출하려는 잡역일,
거의 그 법칙에 예외가 없이
호명하기에 의한 차별.

The famous

Northern reticence, the tight gag of place
And times: yes, yes. Of the 'wee six' I sing
Where to be saved you only must save face
And whatever you say, you say nothing.

Smoke-signals are loud-mouthed compared with us:
Manoeuvrings to find out name and school,
Subtle discrimination by addresses
With hardly an exception to the rule

(‘Whatever You Say Say Nothing’ 59)

두 민족 사이에는 종파적 적대감과 심리적인 긴장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의 공간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민족 사이의 이러한 언어적 단절로 얼스터의 6주를 지칭하는 ‘보잘 것 없는 여섯들’(wee six)에 대해 노래 할 뿐이다. 그러나 6주로 구성된 북아일랜드는 단단하게 재갈물린 입과 같은 지역(the tight gag of place/And times)이며 암호, 손을 움켜잡기, 눈을 꿈쩍거리기, 고개를 끄덕거리기와 같은 몸짓으로 말하는 땅으로서 이곳에서의 침묵을 깨는 발언 혹은 저항은 상대를 포획하기 위해 걸고 놓은 덫과 같이 ‘덫을 푸는 열린 마음’(open minds as open a trap)처럼 위험스럽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상대방의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려는 책략들이 행해지며, 그 ‘호명하기’(address)에 의해 예외 없이 그가 개신교도(Prod)인지 가톨릭교도(Pope)인지 알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언어적 차별과 무시가 행해지는 곳일 뿐이다. 이곳은 마치 ‘불꽃 심지처럼 혀가 꼬부라져 있는 곳이다’(Where tongues lie coiled, as under flames lie wicks). 결국, 시인은 진정으로 열려 있는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공간에서 '모스부호처럼 속삭임'(whispering morse) 수 밖에 없는 소통의 부재를 안타까워 한다.

게일어의 소멸과 민족 사이의 언어 분리, 언어 소통의 단절 앞에서 히니가 아일랜드 영어의 언어적 정체성과 두 민족 공유의 언어 공동체의식을 찾으려한 노력은 그의 시적 재현에 잘 나타나 있는 ‘혀’(tongue)의 이미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의 시에 자주 나오는 혀의 이미지 즉, ‘갈라진 혀, 꼬부라진 혀, 땅의 혀’ 등과 같은 이미지들은 그의 언어에 대한 강박 결국, 히니는 영어의 사용의 동질화나 혹

은 완전한 영어사용의 폐기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영어 속에 자연스레 고유의 언어를 뒤섞어 놓는 일 즉 언어의 전유 방식에 있다. 즉, 탈식민화 전략 중의 하나인 언어의 다문화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다. 히니는 그의 글 「정신의 영국」(“England of the Mind”)에 엘리엇(T. S. Eliot)의 “청각적 상상력”(auditory imagination)에 대해 평하면서 소리로서의 언어를 의미로서의 언어, 즉 어원적 발생물로서의 언어, 인간 역사와 기억과 부속물의 징조로서의 언어와 연결지으면서, “언어와 리듬 속에 스며들어진 문화적인 의미의 깊은 경험”이 시의 단어를 은밀히 결속시켜서 귀 뿐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심연으로 내려가 정신과 육체 전체를 즐겁게 한다“(Heaney 150)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그는 소리와 의미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의식에서 뿐 아니라 인류사적 무의식에서 탐색하여 게일 어원에 대한 관심을 언의 문화사적인 의미에 대한 사색으로 발전시켰다. 또 히니는 자신의 글쓰기와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 1) 나는 언제나 시를 들어왔다. 시는 가끔씩 거의 완벽할 정도로, 깊은 늪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덩어리들과 같이 내게도 다가왔다. 마치 그러한 기분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서 그곳의 비밀스러움을 들추어내는 것과 같다. (Heaney 34)
- 2) 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가 선언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시의 요소를 결합하는 말들 사이의 비밀스러움은 종종 미묘하거나, 고풍스럽고 그래서 시인이자 독자들에게 의해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힘이 있다. (Heaney 186)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는 매개적 요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어자체에 자생적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시인의 고유의 언어에 대한 탐색은 바로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힘에 의해 시인이 오히려 그러한 언어에 순응하게 된다. 즉, 히니는 이를 바탕으로 토착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 혹은 이미 사라졌던 지명과 이름에 다시 언어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재생시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언어적 의미 부여는 고대 복구사에 대한 사색의 시 「벨더그」(“Belderg”)에서 시의 화자가 늪에서 발굴해 낸 신석기 시대의 맷돌을 보면서 그

가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 모스본의 지명이 담긴 어원적 의미를 탐색한다.

그래서 나는 늪의 이름을 가진
모스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모스?’
그가 나의 오래된 고향의 음악을 가로질러왔다.
보다 더 오래된 복구의 선율을 타고.
나는 말했다 그 기원이 어떻게

소리처럼 변하기 쉬운 지를
그리고 그 대지로부터 어떻게
갈라진 뿌리를 끌어 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분이 어떻게 해서 이주농민들의
흙벽으로 둘러싸인 영어식
요새가 되었는지를.

So I talked of Mossbawn
A bogland name. 'But moss?'
He crossed my old home's music
With older strains of Norse.
I'd told how its foundation

Was mutable as sound
And how I could derive
A forked root from that ground
And make bawn an English fort,
A Planter's walled-in mound,

(‘Belderg’ 14)

모스본(Mossbawn)은 어원적으로 고대 아일랜드어인 늪(moss))과 집(bawn)이 합쳐진 단어로서 ‘늪 위의 영국인 요새’를 의미한다. 아일랜드 토착민들은 이 단어를 ‘모스 반’(Moss bann)이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반(ban)은 게일로로 하얏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아일랜드인에게는 “늪 위에 핀 하얀 이끼”를 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스본이란 단어에는 식민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의미와 토착 아일랜드인 사이에서 인식되는 의미의 상실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어원적 상실감이 곧 ‘엘스터의 분열된 문화의 메타포’(Heaney 35)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화자는 뱀들의 눈 속에서 무력적인 침략을 상징하는 바이킹 신화의 ‘세계나무’(a world-tree)를 연상하고, 척추동물처럼 쌓아 놓은 뱀들 더미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부서져 찢겨기가 된 척추동물의 골수를 상상한다. 결국 히니는 이러한 자신의 고향의 어원적 의미 탐색을 통해서 이미 식민화된 의미로써의 지명의 의미와 게일어 복구의 노력으로써의 원래의 의미를 획득하고 자하는 사이 의식(between recognition)을 일으킨다.

결국, 히니의 의식은 곧 “경계선 안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기도 한다.(Heaney2 201)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스본”이라는 지명은 식민 시대의 분열된 문화의 장소이지만, 이 공간을 히니는 언어의 전유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해방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

IV. 아일랜드 식민 공간 기억하기: 언어적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

히니는 영어를 당당하게 그의 언어적 정체성이 일부로 삼고 이분화된 언어적 식민을 아일랜드 영어라고 하는 전유된 형태의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북아일랜드 언어 문화의 정체성을 창출하려고 한다. 자신이 영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사실이 작가적 정체성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거를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한 그의 언어관을 제시한다.

아일랜드에 속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일랜드의 방언을 말을 한다는 사실이 세계의 축제로 부터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삶의 틀이라는 테이블위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언어에 의해서 가미되어진, 각자가 먹는 음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 내 자신이 우연하게 혹은 상상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나의 정체성이 불구적이라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역적이라는 혹자의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Molino 84)

이러한 히니의 언어적 태도는 누군가가 말을 하는 언어 즉, 영어에 아일랜드의 고유어를 뒤섞여 말을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칫 아일랜드어만을 고집하여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주변부의 언어로 머무는 주변화를 경계하면서, 중심의

언어로 세계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전형적인 다문화적 탈식민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언어관은 곧 언어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아일랜드성 혹은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니가 가지는 현실주의적 언어관이다.

히니의 글쓰기는 자신이 발언한 대로, 글쓰기에 의해서 창출된 “하나의 텍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동시에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Curtis 65). 즉, 그의 글쓰기 전반에 나타나는 시골의 풍경들과 고난한 민중들의 삶, 그리고 켈트적 신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문화적, 영토적, 언어적 정체성의 문제와 북아일랜드 사태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고뇌에 대한 시인의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켈트주의와 언어관은 다분히 현실적이며 민중들의 삶에서 파생되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화려했던 아일랜드의 신화와 전통을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거나, 신화적인 이상적 공간을 찾는다고보다는 신화를 탈신화화함으로써 획득되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히니의 시는 바로 아일랜드인들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토착적인 지역 문화를 아일랜드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삼아서 식민사의 유산인 정신적 무력감을 아일랜드인 특유의 자족적인 충만감과 경건성(Irish piety)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의지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히니의 글쓰기 방식은 결국 시를 통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더불어 언어가 가지는 힘에 의해 시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일종의 언어의 문화적인 시적 조절(poetic redress)을 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그의 시적 언어의 자율성 획득은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의식적으로 조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예술적 성실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Heaney 6)의 생산에 있다.

시민문학의 저항으로부터 출발한 히니의 글쓰기 작업은 무엇보다도 언어문제와 더불어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데니스 리(Denis Lee)는 이러한 언어와 공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피식민 하에서 비반성적인 발언은, 단지 낯선 공간을 이야기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한다. 식민체제를 반영한다는 것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피식민지인들의 진정한 공간을 발견할 만한 적절한 용어들을 부재하게 된다. 단지 본래의 영토를 박탈당하고 그러한 표현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박

탈당한다. 결국, 피식민지인들은 이방인적인 가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며 존재하지도 않았을 지금의 원래 공간을 박탈당한 채 그 영토에서 물러나게 된다.

(Lee 400)

결국, 피식민지인들의 언어는 자신들의 낯선 공간으로 침입해 들어감으로써 언어로서 표현 될 진정한 주체적 공간이 없음을 깨닫는다. 언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공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역설은 외부에서의 언어 침묵을 강요당함으로써 생기는 피지배자들의 혼란을 의미하고, 원래의 기억들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의 문화는 새로운 기억 회복하기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유권 박탈이라는 보편적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언어와 장소에 대한 어색함을 느낀다. 즉, 자국의 땅에서 마치 더부살이 하는 사람(fringe-dweller)처럼 자신을 인식한다.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제국의 지도 그리기(mapping)는 피식민지배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그들의 시선에서 지도 그리기를 행함으로 해서 마치 원래의 토착민들의 땅이 마치 그들의 것 인양 왜곡 하게 된다. 탈식민 문학 작가들은 이러한 식민국가의 영토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새로운 탈식민적 공간과 언어의 구성을 추구한다.

탈식민 담론은 제국의 이러한 영토와 언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감히 해체하고 식민주체의 타자화를 거부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탈식민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탈식민문학의 내용들에서 풍경이나 지명들의 이름을 본래 의미의 지명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부재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해서 탈식민 공간과 영토에 대한 글쓰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작가 셰이머스 히니는 그의 글쓰기 전반에 걸쳐 켈트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 아일랜드가 지니고 있었던 무의식적인 기억들을 과거 식민 역사의 기억들에서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과거 기억하기 방식은 단순히 식민역사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지워내거나 봉쇄하는 방식을 통한 기억상실(amenia)이 아니라, 그 불편한 공간의 기억들을 현재에 다시 드러내어 언어적 전략으로 재현해 냄으로써 탈식민화 과정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

인용문헌

- Ashcroft, Bill. *The Post-Colonial Reader*. Ed. Helen Tiffin. New York: Routledge, 1997.
- Bochmer, Elleke.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Cocoran, Neil. *Seamus Heaney*. London: Faber and Faber, 1986.
- Curtis, Tony. *The Art of Seamus Heaney*. Bridgend: Poetry Wales, 1982.
- Deane, Seamus. *Celtic Review: Essays in Modern Irish Literature 1880-1980*.
- Eagleton, Terry,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 Heaney, Seamus. *Preoccupation: Selected Poems 1968-1978*. London: Faber and Faber, 1980.
- _____. *Selected Poems 1966-1987*. London: Faber and Faber, 1991.
- Molino, Michael. *Questioning Tradition, Language, and Myt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4.
- Morrison, Blake. "Speech and Reticence: Seamus Heaney's North." Eds. Peter Jones and Michael Schmit. *British Poetry since 1970: A Critical Survey*. 1992. 103-111.
- Nandy, A. *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1998.
- Parker, Michael. *Seamus Heaney: The Making of Poetry*. London: Macmillan Press, 1983.
- O'Donoghue, Bernard. *Seamus Heaney and the Language of Poetry*.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84.
-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London: Chatto & Windus, 1993.
- _____.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 Tiffin, Helen. *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 London: Routledge, 2000.
- Yeats, W. Butler. *Fairy and Folk Tale*. Revised. London: Modern Library, 2003.

Abstract

Making Anti-Text to Colonial Literature: A Linguistic Tactics in Seamus Heaney's Writing

Min-Gun Kang

This paper is trying to read the text with distinction of the colonial literature and the decolonial literature,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olonial discourse and Seamus Heaney's decolonial linguistic tactics in his poetry.

I assume that a growing interest among readers reflects this prevailing enthusiasm for his work. His method and idea owe more to decolonial attitude more than that of the established poets in Ireland. This seems to be an attractive factor to draw a reader's attention. In fact, his poetry has the proper qualities to absorb the devotees of 'decolonialism' which is still dominant in dealing with the poetry.

Heaney have been witnessed historical moments of the death of his mother land, Ireland as well as of the Irish people, as the history of Ireland manifests. In doing so, the Irish people broke the cycle of imperial situation. The consciousness of them became consciousness of the nation. That is to say, Heaney accepted the humiliating colonial history and humble present Irish people in their ordinary life under the colonial situation in Ireland. To overcome this poor condition, the poet Heaney explored the traditional literature in Ireland, characterized by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colonization and a sense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privation. By way of this historical experience of authentic decolonization of his mother land, Heaney's aesthetics became, more and more, politicized against the crisis which the repressive force of imperialism caused to occur. Under this traumatic disasters of Ireland, Heaney's poetic quest makes him and practical struggle against the colonial power in a poetic way.

To regard this, this thesis analyses Heaney's text focusing on the decolonialism

expressed by his poetry. I try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 poetic writings and its attitude against English colonialism. To do this, My major interest is in his realistic Celticism and appropriated language employed in his poetry. And I attempt to search for the true Irishness which Heaney makes every effort to materialize the reality of Ireland in his poetry.

■ Key words: decolonilism, writing back, anti-textuality, amnesia, dinnseanchas/poetry of locality, appropriation(탈식민주의, 되받아 쓰기, 저항 텍스트성, 기억상실, 지명시, 전유)